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MAY
2025 05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행전/로마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은밀히 주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희들을 주님의 오른편 원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신앙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된 초보도 아니고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주님이 몇 번씩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도, 심지어 방금 전에 거룩한 성만찬도 하고 나서 이런 어이없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가슴 속에 세상적 욕심이 가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의 문제는 첫째 잘못된 보상 심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주님께 바치고 함께 출고 배고픈 시절을 거쳤으니, 주님이 왕이 되시면 1등 개국공신으로 보상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의 베스트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남은 생애를 다 바쳐도 이미 주신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차고도 넘치는 보상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로 이들은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남보다 더 높고 좋은 자리에 가려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야고보 요한은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다 함께 주님 곁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개국공신 중에서도 1등 개국공신이 되길 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자리다툼 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에게 그들은 휘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 자신이 그 표본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남을 섬기는 자요, 교만한 자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교회의 2천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교만한 자들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서 세상적으로 남보다 성공하게 해 달라는, 욕심 가득한 기도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드리고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 요한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자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모자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인간적 야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출세해 보려던 그 어쭙장은 욕망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부서져 버렸습니다. 갈보리 주님 십자가는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따랐던 우리를 정진 차리게 합니다. 주님에게 헌신한 것만큼 이 땅의 축복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그릇된 욕심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보상받았음을 알려 주는 은혜의 감동입니다.

교만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설 때 부서집니다. 겸손은 노력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할 때 생겨납니다. 야심은 교만한 자가 꾸는 세상적 꿈이고, 비전은 겸손한 자가 꾸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야심에서 비전으로 가는 거룩한 터닝포인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부모나 자녀 모두 십자가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행전/로마서]



2025.
05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7	28	29	30
4 가정주일	5 어린이날/석가탄신일	6 대체공휴일	7
	5-7 제주선교		
11 교사주일	12	13	14
새가족 127기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18	19	20	21
25	26	27	28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8 어버이날	9	10
		부부학교 개강
15 스승의 날	16	17
22	23	24
29	30	31
에버그린 야유회	30-6/1 여름말씀부흥집회	

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5.
05

1	목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행 23:6-11
2	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행 23:12-22
3	토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하다	행 23:23-35
4	주일	사사 에훗	삿 3:12-30
5	월	[어린이날]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잠 3:1-10
6	화	[대체공휴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	시 128:1-6
7	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	행 24:1-9
8	목	바울의 신앙고백	행 24:10-21
9	금	벨릭스가 바울의 사건을 미루다	행 24:22-27
10	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행 25:1-12
11	주일	사사 드보라	삿 4:1-16
12	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사 41:8-16
13	화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의 만남	행 25:13-27
14	수	구원을 위한 변명	행 26:1-12
15	목	장차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행 26:13-23
16	금	나와 같이 되기를	행 26:24-32
17	토	복음을 위해 항해하는 죄수	행 27:1-12
18	주일	시스라의 최후	삿 4:17-24 & 5:24-30
19	월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전 1:26-29
20	화	여러분이며 안심하라	행 27:13-26
21	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행 27:27-44
22	목	멜리데에서 행한 치유 사역	행 28:1-10
23	금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행 28:11-22
24	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행 28:23-31
25	주일	드보라의 개선가	삿 5:1-12
26	월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	시 18:1-6
27	화	복음을 위한 부르심	롬 1:1-7
28	수	복음의 빛진 자	롬 1:8-15
29	목	복음, 하나님의 능력	롬 1:16-17
30	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18-23
31	토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롬 1:24-32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하심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를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목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행 23:6-11

- 6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Then Paul, knowing that some of them were Sadducees and the others Pharisees, called out in the Sanhedrin, "My brothers, I am a Pharisee, descended from Pharisees. I stand on trial because of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When he said this, a dispute broke out between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and the assembly was divided.

-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The Sadducees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and that there are neither angels nor spirits, but the Pharisees believe all these things.)

- 9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There was a great uproar, and some of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stood up and argued vigorously. "We find nothing wrong with this man," they said. "What if a spirit or an angel has spoken to him?"

-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The dispute became so violent that the commander was afraid Paul would be torn to pieces by them. He ordered the troops to go down and take him away from them by force and bring him into the barracks.

- 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near Paul and said, "Take courage! As you have testified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2

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행 23:12-22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
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
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
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
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
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
비하였노라 하더니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
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
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나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
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
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
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3

토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하다

행 23:23-35

23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 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24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5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26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8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1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33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가 사람인 줄 알고

35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4

주일

사사 에훗

삿 3:12-30

- 12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because they did this evil the LORD gave Eglon king of Moab power over Israel.

- 13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Getting the Ammonites and Amalekites to join him, Eglon came and attacked Israel, and they took possession of the City of Palms.

- 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열여덟 해 동안 섬기니라

The Israelites were subject to Eglon king of Moab for eighteen years.

-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Agai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the LORD, and he gave them a deliverer—Ehud, a left-handed man, the son of Gera the Benjamite. The Israelites sent him with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 16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Now Ehud had made a double-edged sword about a cubit long, which he strapped to his right thigh under his clothing.

- 17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He presented the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who was a very fat man.

- 18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After Ehud had presented the tribute, he sent on their way those who had carried it.

- 19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But on reaching the stone images near Gilgal he himself went back to Eglon and said, “Your Majesty,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The king said to his attendants, “Leave us!” And they all left.

- 20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Ehud then approached him while he was sitting alone in the upper room of his palace and said, “I have a message from God for you.” As the king rose from his seat,

- 21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Ehud reached with his left hand, drew the sword from his right thigh and plunged it into the king's belly.

- 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Even the handle sank in after the blade, and his bowels discharged. Ehud did not pull the sword out, and the fat closed in over it.

- 23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Then Ehud went out to the porch; he shut the doors of the upper room behind him and locked them.

- 24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After he had gone, the servants came and found the doors of the upper room locked. They said, "He must be relieving himself in the inner room of the palace."

- 25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They waited to the point of embarrassment, but when he did not open the doors of the room, they took a key and unlocked them. There they saw their lord fallen to the floor, dead.

- 26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While they waited, Ehud got away. He passed by the stone images and escaped to Seirah.

- 27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When he arrived there, he blew a trumpet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Israelites went down with him from the hills, with him leading them.

- 28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Follow me," he ordered, "for the LORD has given Moab, your enemy, into your hands." So they followed him down and took possession of the fords of the Jordan that led to Moab; they allowed no one to cross over.

- 29 그 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At that time they struck down about ten thousand Moabites, all vigorous and strong; not one escaped.

- 30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That day Moab was made subject to Israel, and the land had peace for eighty years.

05

월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잠 3:1-10

- 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My son, do not forget my teaching, but keep my commands in your heart,

- 2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for they will prolong your life many years and bring you peace and prosperity.

- 3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Let love and faithfulness never leave you; bind them around your neck,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Then you will win favor and a good name in the sight of God and man.

-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Do not be wise in your own eyes; fear the LORD and shun evil.

-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This will bring health to your body and nourishment to your bones.

-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Honor the LORD with your wealth, with the firstfruits of all your crops;

-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then your barns will be filled to overflowing, and your vats will brim over with new wine.

06

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

시 128:1-6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obedience to him.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You will eat the fruit of your labor; blessings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
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
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Your wife will be like a fruitful vine within your
house; your children will be like olive shoots around
your table.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
리로다

Yes, this will be the blessing for the man who fears
the LORD.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May the LORD bless you from Zion; may you see the
prosperity of Jerusalem all the days of your life.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
강이 있을지로다

May you live to see your children's children— peace
be on Israel.

07

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

행 24:1-9

- 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Five days later the high priest Ananias went down to Caesarea with some of the elders and a lawyer named Tertullus, and they brought their charges against Paul before the governor.

- 2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When Paul was called in, Tertullus presented his case before Felix: "We have enjoyed a long period of peace under you, and your foresight has brought about reforms in this nation.

- 3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Everywhere and in every way, most excellent Felix, we acknowledge this with profound gratitude.

- 4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But in order not to weary you further, I would request that you be kind enough to hear us briefly.

- 5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We have found this man to be a troublemaker, stirring up riots among the Jews all over the world. He is a ringleader of the Nazarene sect

- 6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and even tried to desecrate the temple; so we seized him.

- 7 (없음)
(empty)

- 8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By examining him yourself you will be able to learn the truth about all these charges we are bringing against him."

- 9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The other Jews joined in the accusation, asserting that these things were tru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8

목

바울의
신앙고백

행 24:10-21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18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20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1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9

금

벨릭스가
바울의 사건을 미루다

행 24:22-27

- 22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
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Then Felix, who was well acquainted with the Way, adjourned the proceedings. "When Lysias the commander comes," he said, "I will decide your case."

- 23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
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
하지 말라 하니라

He ordered the centurion to keep Paul under guard but to give him some freedom and permit his friends to take care of his needs.

- 24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
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
수 믿는 도를 듣거늘

Several days later Felix came with his wife Drusilla, who was Jewish. He sent for Paul and listened to him as he spoke about faith in Christ Jesus.

-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
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As Paul talked about righteousness, self-control and the judgment to come, Felix was afraid and said, "That's enough for now! You may leave. When I find it convenient, I will send for you."

- 26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At the same time he was hoping that Paul would offer him a bribe, so he sent for him frequently and talked with him.

- 27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
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When two years had passed, Felix was succeeded by Porcius Festus, but because Felix wanted to grant a favor to the Jews, he left Paul in priso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0

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행 25:1-12

- 1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삼 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 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 3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 4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 5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 8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 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주일

사사
드보라

삿 4:1-16

- 1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now that Ehud was dead.

- 2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
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So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s of Jabin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Sisera,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based in Harosheth
Haggoyim.

- 3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
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
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Because he had nine hundred chariots fitted with
iron and had cruelly oppressed the Israelites for
twenty years,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 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Now Deborah, a prophet, the wife of Lappidoth, was
leading Israel at that time.

- 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
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She held court under the Palm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Israelites went up to her to have their disputes
decided.

- 6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갈
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
로 가라

She sent for Barak son of Abinoam from Kedesh
in Naphtali and said to him,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s you: 'Go, take with you ten
thousand men of Naphtali and Zebulun and lead
them up to Mount Tabor.'

- 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
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
느니라

I will lead Sisera, the commander of Jabin's army,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to the Kishon River
and give him into your hands."

- 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
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
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Barak said to her, "If you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don't go with me, I won't go."

- 9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
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Certainly I will go with you," said Deborah. "But
because of the course you are taking, the honor will
not be yours, for the LORD will deliver Sisera into the
hands of a woman." So Deborah went with Barak to
Kedesh.

-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There Barak summoned Zebulun and Naphtali, and
ten thousand men went up under his command.
Deborah also went up with him.

- 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Now Heber the Kenite had left the other Kenites, the
descendants of Hobab, Moses' brother-in-law, and
pitched his tent by the great tree in Zaanannim near
Kedesh.

-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
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When they told Sisera that Barak son of Abinoam
had gone up to Mount Tabor,

- 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
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학고임에
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Sisera summoned from Harosheth Haggoyim to
the Kishon River all his men and his nine hundred
chariots fitted with iron.

-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
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
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
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Then Deborah said to Barak, "Go!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given Sisera into your hands. Has not the
LORD gone ahead of you?" So Barak went down
Mount Tabor, with ten thousand men following him.

- 15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
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
망한지라

At Barak's advance, the LORD routed Sisera and all
his chariots and army by the sword, and Sisera got
down from his chariot and fled on foot.

- 16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
로셋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
더라

Barak pursued the chariots and army as far as
Harosheth Haggoyim, and all Sisera's troops fell by
the sword; not a man was left.

12

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사 41:8-16

-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But you, Israel, my servant, Jacob, whom I have chosen, you descendants of Abraham my friend,

-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I took you from the ends of the earth, from its farthest corners I called you. I said, 'You a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and have not rejected you.

-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 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All who rage against you will surely be ashamed and disgraced; those who oppose you will be as nothing and perish.

- 12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Though you search for your enemies, you will not find them. Those who wage war against you will be as nothing at all.

-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For I am the LORD your God who takes hold of your right hand and says to you, Do not fear; I will help you.

- 14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Do not be afraid, you worm Jacob, little Israel, do not fear, for I myself will help you," declares the LORD,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 15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See, I will make you into a threshing sledge, new and sharp, with many teeth. You will thresh the mountains and crush them, and reduce the hills to chaff.

- 16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You will winnow them, the wind will pick them up, and a gale will blow them away. But you will rejoice in the LORD and glory in the Holy One of Israel.

13

화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의 만남

행 25:13-27

- 13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 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 14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 17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 18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 19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 20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 21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 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 24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며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 25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 26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 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 27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4

수

구원을 위한
변명

행 26:1-12

- 1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 3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 4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 5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 6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 7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 8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का
- 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 10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 12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5

목

장차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행 26:13-23

13 왕이며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
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
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
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
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
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
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
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
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
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9 아그립바 왕이며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
므로

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
였으나

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
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
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
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행 26:24-32

-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At this point Festus interrupted Paul's defense. "You are out of your mind, Paul!" he shouted. "Your great learning is driving you insane."

-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I am not insane, most excellent Festus," Paul replied. "What I am saying is true and reasonable."

-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The king is familiar with these things, and I can speak freely to him. I am convinced that none of this has escaped his notice, because it was not done in a corner.

-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King Agrippa, do you believe the prophets? I know you do."

- 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Then Agrippa said to Paul, "Do you think that in such a short time you can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 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남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Paul replied, "Short time or long—I pray to God that not only you but all who are listening to me today may become what I am, except for these chains."

-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The king rose, and with him the governor and Bernice and those sitting with them.

-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After they left the room, they began saying to one another, "This man is not doing anything that deserves death or imprisonment."

- 32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Agrippa said to Festus, "This man could have been set free if he had not appealed to Caesa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7

토

복음을 위해
항해하는 죄수

행 27:1-12

- 1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
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
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
더니
- 4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
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 6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
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 7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로 항해하여
- 8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
르니 라새아 시에서 가깝더라
-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
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
을 권하여
- 10 말하되 여러분이며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 12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
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
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
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8

주일

시스라의
최후

삿 4:17-24 & 5:24-30

[삿 4:17-24]

- 17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술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Sisera, meanwhile, fled on foot to the tent of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because there was an alliance between Jabin king of Hazor and the family of Heber the Kenite.

- 18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Jael went out to meet Sisera and said to him, “Come, my lord, come right in. Don’t be afraid.” So he entered her tent, and she covered him with a blanket.

- 19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I’m thirsty,” he said. “Please give me some water.” She opened a skin of milk, gave him a drink, and covered him up.

- 20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물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Stand in the doorway of the tent,” he told her. “If someone comes by and asks you, ‘Is anyone in there?’ say ‘No.’”

- 21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But Jael, Heber’s wife, picked up a tent peg and a hammer and went quietly to him while he lay fast asleep, exhausted. She drove the peg through his temple into the ground, and he died.

- 22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Just then Barak came by in pursuit of Sisera, and Jael went out to meet him. “Come,” she said, “I will show you the man you’re looking for.” So he went in with her, and there lay Sisera with the tent peg through his temple—dead.

- 23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On that day God subdued Jabin king of Canaan before the Israelites.

-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And the hand of the Israelites pressed harder and harder against Jabin king of Canaan until they destroyed him.

[삿 5:24-30]

- 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Most blessed of women be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most blessed of tent-dwelling women.

- 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He asked for water, and she gave him milk; in a bowl fit for nobles she brought him curdled milk.

- 26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Her hand reached for the tent peg, her right hand for the workman's hammer. She struck Sisera, she crushed his head, she shattered and pierced his temple.

- 27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At her feet he sank, he fell; there he lay. At her feet he sank, he fell; where he sank, there he fell—dead.

-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Through the window peered Sisera's mother; behind the lattice she cried out, 'Why is his chariot so long in coming? Why is the clatter of his chariots delayed?'

- 29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The wisest of her ladies answer her; indeed, she keeps saying to herself,

- 30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Are they not finding and dividing the spoils: a woman or two for each man, colorful garments as plunder for Sisera, colorful garments embroidered, highly embroidered garments for my neck— all this as plunder?'

19

월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전 1:26-29

-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Brothers and sist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s; not many were influentia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God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and the things that are not—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여러분이어
안심하라

행 27:13-26

13 남풍이 순하게 불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 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행 27:27-44

- 27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 28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 인즉
- 34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 36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 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 이더라
-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 39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 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 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 42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2

목

멜리데에서 행한
치유 사역

행 28:1-10

- 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쪽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Once safely on shore, we found out that the island was called Malta.

- 2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The islanders showed us unusual kindness. They built a fire and welcomed us all because it was raining and cold.

- 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Paul gathered a pile of brushwood and, as he put it on the fire, a viper, driven out by the heat, fastened itself on his hand.

- 4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When the islanders saw the snake hanging from his hand, they said to each other, "This man must be a murderer; for though he escaped from the sea, the goddess Justice has not allowed him to live."

-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But Paul shook the snake off into the fire and suffered no ill effects.

- 6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The people expected him to swell up or suddenly fall dead; but after waiting a long time and seeing nothing unusual happen to him, they changed their minds and said he was a god.

- 7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There was an estate nearby that belonged to Publius, the chief official of the island. He welcomed us to his home and showed us generous hospitality for three days

- 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His father was sick in bed, suffering from fever and dysentery. Paul went in to see him and, after prayer, placed his hands on him and healed him.

- 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When this had happened, the rest of the sick on the island came and were cured.

-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They honored us in many ways; and when we were ready to sail, they furnished us with the supplies we need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3

금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행 28:11-22

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 이사에게 상소함ियो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행 28:23-31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They arranged to meet Paul on a certain day, and came in even larger numbers to the place where he was staying. He witnessed to them from morning till evening, explaining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from the Law of Moses and from the Prophets he tried to persuade them about Jesus.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Some were convinced by what he said, but others would not believe.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They disagreed among themselves and began to leave after Paul had made this final statement: "The Holy Spirit spoke the truth to your ancestors when he said through Isaiah the prophet: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Go to this people and say, "You will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you will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For this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Therefore I want you to know that God's salvation has been sent to the Gentiles, and they will listen!"

29 (없음)
(empty)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For two whole years Paul stayed there in his own rented house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see him.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He proclaim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5

주일

드보라의
개성가

삿 5:1-12

- 1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On that day Deborah and Barak son of Abinoam
sang this song:

- 2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When the princes in Israel take the lead, when the
people willingly offer themselves— praise the LORD!

- 3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
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
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Hear this, you kings! Listen, you rulers! I, even I, will
sing to the LORD; I will prai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in song.

- 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
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When you, LORD, went out from Seir, when you
marched from the land of Edom, the earth shook,
the heavens poured, the clouds poured down water.

-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
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
하였도다

The mountains quaked before the LORD, the One of
Sinai, before the LORD, the God of Israel.

- 6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In the days of Shamgar son of Anath, in the days of
Jael, the highways were abandoned; travelers took
to winding paths.

- 7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까지 그쳤도다

Villagers in Israel would not fight; they held back
until I, Deborah, arose, until I arose, a mother in
Israel.

- 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
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God chose new leaders when war came to the city
gates, but not a shield or spear was seen among
forty thousand in Israel.

-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
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
와를 찬송하라

My heart is with Israel's princes, with the willing
volunteers among the people. Praise the LORD!

- 10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
에 행하는 자들이 전파할지어다

“You who ride on white donkeys, sitting on your
saddle blankets, and you who walk along the road,
consider

- 11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의 곳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
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
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 때에 여호와와 그의 백
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the voice of the singers at the watering places. They
recite the victories of the LORD, the victories of his
villagers in Israel.”Then the people of the LORD went
down to the city gates.

- 12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
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
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
를 끌고 갈지어다

‘Wake up, wake up, Deborah! Wake up, wake up,
break out in song! Arise, Barak! Take captive your
captives, son of Abinoam.’

26

월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

시 18:1-6

-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 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
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
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I called to the LORD, who is worthy of praise, and I
have been saved from my enemies.

- 4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The cords of death entangled me; the torrents of
destruction overwhelmed me.

-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
게 이르렀도다

The cords of the grave coiled around me; the snares
of death confronted me.

- 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
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
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I cried to my God
for help. From his temple he heard my voice; my cry
came before him, into his ears.

27

화

복음을 위한
부르심

롬 1:1-7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the gospel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regarding his Son, who as to his earthly life was a descendant of David,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and who through the Spirit of holiness was appointed the Son of God in power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Through him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for his name's sake.

-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And you also are among those Gentiles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 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To all in Rome who are loved by God and called to be his holy people: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복음의
빛진 자

롬 1:8-15

- 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First,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all of you, because your faith is being reported all over the world.

-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예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God, whom I serve in my spirit in preaching the gospel of his Son, is my witness how constantly I remember you

-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in my prayers at all times; and I pray that now at last by God's will the way may be opened for me to come to you.

-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that is, that you and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I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others and sisters, that I planned many times to come to you (but have been prevented from doing so until now) in order that I might have a harvest among you, just as I have had among the other Gentiles.

-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I am obligated both to Greeks and non-Greeks, both to the wise and the foolish.

-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That is why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also to you who are in Ro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9

목

복음,
하나님의 능력

롬 1:16-17

-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first to the Jew, then to the Gentile.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0

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18-23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people, who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since what may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because God has made it plain to them.

-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qualities—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so that people are without excuse.

-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Although they claimed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and exchanged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made to look like a mortal human being and birds and animals and reptil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1

토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롬 1:24-32

-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Therefore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s of their hearts to sexual impurity for the degrading of their bodies with one another.

-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They exchanged the truth about God for a lie, and worshiped and served created things rather than the Creator—who is forever praised. Amen.

-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Because of this, God gave them over to shameful lusts.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sexu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

-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men also abandoned natural relations with women and were inflamed with lust for one another. Men committed shameful acts with other men, and received in themselves the due penalty for their error.

-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Furthermore, just as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so God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so that they do what ought not to be done.

-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They have become filled with every kind of wickedness, evil, greed and depravity. They are full of envy, murder, strife, deceit and malice. They are gossips,

-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slanderers, God-haters, insolent, arrogant and boastful; they invent ways of doing evil; they disobey their parents;

-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they have no understanding, no fidelity, no love, no mercy.

- 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Although they know God's righteous decre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deserve death, they not only continue to do these very things but also approve of those who practice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5.
05

순예배 가이드

01

1. 5월 둘째 주(5/11-17)

시스라의 최후 (삿 4:17-24 & 5:24-30)

2. 5월 셋째 주(5/18-24)

드보라의 개선거 (삿 5:1-12)

3. 5월 넷째 주(5/25-31)

드보라의 개선거(2) (삿 5:13-23 & 31)

02

[순예배 가이드] 5월 둘째 주 (5/11-17)

시스라의 최후

사사기 4:17-24 & 5:24-30

지난주 본문 요약 | 사사 드보라 (삿 4:1-16)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세워진 사사이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과 함께 다불산 아래에서 여호와와 칼날로 무찔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삿 4:17-24]

- 17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Sisera, meanwhile, fled on foot to the tent of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because there was an alliance between Jabin king of Hazor and the family of Heber the Kenite.

- 18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Jael went out to meet Sisera and said to him, "Come, my lord, come right in. Don't be afraid." So he entered her tent, and she covered him with a blanket.

관찰/해석

- 19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I'm thirsty," he said. "Please give me some water." She opened a skin of milk, gave him a drink, and covered him up.

- 20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물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Stand in the doorway of the tent," he told her. "If someone comes by and asks you, 'Is anyone in there?' say 'No.'"

- 21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But Jael, Heber's wife, picked up a tent peg and a hammer and went quietly to him while he lay fast asleep, exhausted. She drove the peg through his temple into the ground, and he died.

- 22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Just then Barak came by in pursuit of Sisera, and Jael went out to meet him. "Come," she said, "I will show you the man you're looking for." So he went in with her, and there lay Sisera with the tent peg through his temple—dead.

* **겐 사람(17절):** '대장장이'라는 뜻으로, 가인의 자손 중 금속 제련 기술이 뛰어났던 두발가인의 후예로 추정되며, 미디안 광야에 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여기 속해있습니다.

관찰/해석

23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
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On that day God subdued Jabin king of Canaan
before the Israelites.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
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
하였다
And the hand of the Israelites pressed harder and
harder against Jabin king of Canaan until they
destroyed him.

[삿 5:24-30]

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
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
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Most blessed of women be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most blessed of tent-dwelling women.

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He asked for water, and she gave him milk; in a bowl
fit for nobles she brought him curdled milk.

26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
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
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Her hand reached for the tent peg, her right hand
for the workman's hammer. She struck Sisera, she
crushed his head, she shattered and pierced his
temple.

27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At her feet he sank, he fell; there he lay. At her feet he
sank, he fell; where he sank, there he fell—dead.

관찰/해석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
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
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Through the window peered Sisera's mother;
behind the lattice she cried out, 'Why is his chariot
so long in coming? Why is the clatter of his chariots
delayed?'

29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
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The wisest of her ladies answer her; indeed, she
keeps saying to herself,

30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
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
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
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놓은 채색 옷이리
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
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Are they not finding and dividing the spoils: a
woman or two for each man, colorful garments as
plunder for Sisera, colorful garments embroidered,
highly embroidered garments for my neck— all
this as plunder?'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2.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3. 결국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4:21]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WORSHIP

03

[순예배 가이드] 5월 셋째 주(5/18-24)

드보라의 개선가

사사기 5:1-12

지난주 본문 요약 | 시스라의 최후 (삿 4:17-24 & 5:24-30)

다볼산 전투에서 도망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고, 야엘에 의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On that day Deborah and Barak son of Abinoam sang this song:

2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When the princes in Israel take the lead, when the people willingly offer themselves— praise the LORD!

3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Hear this, you kings! Listen, you rulers! I, even I, will sing to the LORD; I will prai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in song.

관찰/해석

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When you, LORD, went out from Seir, when you marched from the land of Edom, the earth shook, the heavens poured, the clouds poured down water.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The mountains quaked before the LORD, the One of Sinai, before the LORD, the God of Israel.

6 아낏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In the days of Shamgar son of Anath, in the days of Jael, the highways were abandoned; travelers took to winding paths.

7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Villagers in Israel would not fight; they held back until I, Deborah, arose, until I arose, a mother in Israel.

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God chose new leaders when war came to the city gates, but not a shield or spear was seen among forty thousand in Israel.

* **영솔자(2절):** '무리의 지도자'라는 뜻으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끄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 **세일(4절):** 에서 자손들의 거주지로, 후에는 '에돔'으로 불렸습니다.

* **삼갈(6절):** 이스라엘 사사 중 하나로,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관찰/해석

-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My heart is with Israel's princes, with the willing volunteers among the people. Praise the LORD!

- 10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파할지어다

"You who ride on white donkeys, sitting on your saddle blankets, and you who walk along the road, consider

- 11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서도 여호와와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 때에 여호와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the voice of the singers at the watering places. They recite the victories of the LORD, the victories of his villagers in Israel."Then the people of the LORD went down to the city gates.

- 12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Wake up, wake up, Deborah! Wake up, wake up, break out in song! Arise, Barak! Take captive your captives, son of Abinoam.'

* 흰 나귀를 탄 자들(10절): 이스라엘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귀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 양탄자(10절): 꽃이 수놓인 자리를 말하며, 존귀한 자가 앉는 자리라는 뜻을 지닙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2.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며,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3.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5:11]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는 곳에서도 여호와와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 때 여호와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WORSHIP

04

[순예배 가이드] 5월 넷째 주(5/25-31)

드보라의 개선가 (2)

사사기 5:13-23 & 31

지난주 본문 요약 | 드보라의 개선가 (삿 5:1-12)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노래로,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진동하며, 그 승리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3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The remnant of the nobles came down; the people of the LORD came down to me against the mighty.

- 14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Some came from Ephraim, whose roots were in Amalek; Benjamin was with the people who followed you. From Makir captains came down, from Zebulun those who bear a commander's staff.

- 15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잇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The princes of Issachar were with Deborah; yes, Issachar was with Barak, sent under his command into the valley. In the districts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관찰/해석

- 16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되었나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Why did you stay among the sheep pens to hear the whistling for the flocks? In the districts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 17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었나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Gilead stayed beyond the Jordan. And Dan, why did he linger by the ships? Asher remained on the coast and stayed in his coves.

- 18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The people of Zebulun risked their very lives; so did Naphtali on the terraced fields.

- 19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 물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Kings came, they fought, the kings of Canaan fought. At Taanach, by the waters of Megiddo, they took no plunder of silver.

- 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From the heavens the stars fought, from their courses they fought against Sisera.

* **대장군(14절):** '기록하는 자' 즉 서기관들 중에서 지휘봉을 잡은 능력 있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 **다아낙(19절):** '모래로 된 땅'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 끝에 있는 므깃도 남동쪽에 위치한 교통, 군사, 상업의 요충지이며,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바락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집결시킨 장소입니다.

관찰/해석

21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The river Kishon swept them away, the age-old river, the river Kishon. March on, my soul; be strong!

22 그 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Then thundered the horses' hooves— galloping, galloping go his mighty steeds.

23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Curse Meroz,' said the angel of the LORD. 'Curse its people bitterly, because they did not come to help the LORD, to help the LORD against the mighty.'

31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So may all your enemies perish, LORD! But may all who love you be like the sun when it rises in its strength." Then the land had peace forty years.

* 메로스(23절): '재난'이라는 뜻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아빈의 군사와 전투할 때, 인근에서 구원병 요청에 불응하고 방관하다가 저주받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된 용사이신 여호와 한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
2.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말씀 붙들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주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3. 원수들은 망하게 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승리케 하시며, 살롬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5:31]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개인기도제목 - 1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2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3주차

[illegible]

개인기도제목 - 4주차

[illegible]

2025.
05

CES 리더십 컨퍼런스 간증

02

1. 최영남 목사 (서귀포강변교회)
2. 남기창 목사 (인천 예일교회)
3. 정소희 사모 (인천 예일교회)
4. 임호경 사모 (더원교회)

CES

에센스

2025 CES 리더십 컨퍼런스

*일시: 2025년 3월 24일(월)-3월 26일(수)

*장소: 가평 필그림하우스

CHRISTIANITY
ESSENCE
SCHOOL

제주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최영남 목사 (서귀포강변교회)

2024년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양육에 대한 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습니다. 중직자들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안수 집사 두 분과 고령의 시무권사 두 분이 전부입니다. 2023년 12월에 부임한 저는, 목회자 교체 이후 분열되어 아파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장로와 권사들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임직은 신앙연수와 헌신의 정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주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 교회 표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일꾼’.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2025년 CES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깨달은 것은 저의 목회 동역자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명, 또 한 명, 양육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멘토로서 섬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겸손과 은유, 그리고 열정은 작은 예수

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탄탄한 조직신학의 틀 위에 신앙적인 풍성한 간증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성이 부러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이 같은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SMP 멤버십 협약을 했습니다. 새로운교회와 그리고 한 홍 목사님과 더욱 활발한 동역과 영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부흥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성결교회를 SMP에 끼워 준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협약식을 맺으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새로운교회와 한 홍 목사와 연결되니 좋니? 그러나 기억하거라. 넌 이미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단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서귀포강변교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책임질 거란다. 성령께서 돕고 있단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CES 리더십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를 바꾸시고, 아내를 바꾸시고, 성도와 교회를 바꾸고 계십니다.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흥의 파도를 멋지게 타고 싶습니다. 제주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1:1 양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가능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기창 목사 (인천 예일교회)

저희 교회는 제대로 된 양육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아 양육 사역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가을 ‘양육’을 주제로 열렸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새로운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 커리큘럼과 실제 진행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학기부터 기초양육 단계로 성경과 노라마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과정을 마친 이후에 CES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에센스(CES)’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 홍 목사님의 책으로 접했던 터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그룹 강의식으로 양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확신이 없었던 점은 1:1 양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양육 체계는 주로 그룹 강의와 훈련들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평신도들 중에서 1:1 양육 리더, 즉 멘토를 세워야 하지? 과연 그들이 양육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활동도 적지 않은 터라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확신은 서지 않고, 그러던 차에 이번 CES 리더십 컨퍼런스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큰 유익은 한 홍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CES의 기본 철학과 목적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과 실제로 CES를 통해 양육되고 멘토로 섬기고 계시

는 장로님들을 만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주변의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양육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창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사이의 갈등에서 성도들을 균형 있는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철학이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홍 목사님과 함께 하는 조별 식사 후 간담회 때 1:1 양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을 때 “내일 장로님들을 직접 만나면 알게 될 겁니다.”하신 목사님의 조언대로, 장로님의 멘토를 받은 CES워크숍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멘토 장로님들을 뵈면서, ‘아, 이분들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멘토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그 신앙대로 살아내시는 분들 이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1:1 양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가능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인 지금의 제 고민은 이제 어떻게 우리 예일교회에서 CES 양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제가 만났던 멘토님들과 같은 예수 제자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홍 목사님께서 양육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말씀해 주신 것을 되뇌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 홍 목사님을 비롯하여 섬겨 주신 모든 목사님과 스텝분들, 그리고 멘토로 섬겨 주신 장로님들과 새로운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정소희 사모 (인천 예일교회)

리더십 캠프를 가기 전 내주신 과제인 CES 책을 한과씩 읽고 워크북으로 다시 복습하는 과정 중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 적으며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써왔던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CES 컨퍼런스가 더 기대가 되었고 은혜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게 되니 2박 3일 동안 모든 시간 시간마다 저의 기대를 넘어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CES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였던 새로운교회 멘토분들과의 CES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성향의 두 분의 멘토로부터 2:1, 1:1 성경 공부를 해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멘토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들께 CES 양육을 한다는 것이 긴장되셨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도 사모지만 저의 얕은 성경적 지식이 탄로 날까 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염려를 뛰어넘는 멘토님의 양육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단락 한 단락 빠짐없이 읽어가며 지식도 쌓아가지만 그에 따른 나눔을 할 때 멘토님의 진솔한 나눔으로 신앙의 선배로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배울 점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들을 수 있어 은

혜가 되었습니다. 뼈곡하게 적힌 멘토님의 책과 열정적인 설명, 마지막 마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나눔 못지않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날 공부한 과를 가지고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세밀하게 기도해 주시는 멘토님께 감사의 인사와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기질과 강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멘토님들의 스타일과 강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멘토로 오신 새로운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직분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CES를 통해 성도들에게 영적 부모와도 같은 모습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영적인 분위기가 저희 교회 가운데도 시작되길 꿈꾸며 서두르지 않고 CES를 정말 귀하게 사용할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저희에게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신 한 홍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그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임호경 사모 (더원교회)

컨퍼런스에 오기 전에 참석자 누구든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 본 경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 적고 책을 읽으면서 저의 영혼이 소생되는 느낌이었고 말씀이 충만해지니 과제는 내내 즐거워서 계속 웃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미리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게 하시니 컨퍼런스 매 순서마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개회예배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목양하면서 CES를 접목해야 한다고 하신 설교말씀은 끝까지 품고 가야 할 마음의 자세였고 잊어서는 안되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저는 두 가지 제 부끄러운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전쟁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첩터를 나눌 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단의 공격을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군사로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저는 외면하려고 했고 방관하면서 다 지나간단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안일한 태도로 대처했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4년째인데 그동안 혼자 버텨 낸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고, 10대가 너무 힘들었던 우리 큰 아이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대적해 주었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많이 미안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목사님 말씀 중에 제자훈련엔 힘써 왔지만 사도성에 실패했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짚어 주셨을 때 마음의 찢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상 명령에는 늘 직무유기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CES를 잘 준비하여서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CES 과정을 배우면서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멘토님과 매칭이 되어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거 같습니다. 먼 곳까지 와 주신 새로운교회 두 분의 권사님께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두 분을 뵈니 결국 CES의 과정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된 마음으로 삶을 나눠 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경청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걸음을 어떻게 떼어야 할지 시기와 방법에 대한 기도와 CES를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규모로 부흥의 기준을 삼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반듯하게 서 있는 더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2025.
05

예이비 인도자 스쿨 간증

03

1. 김경태B 집사 (N서초공동체)
2. 박정희D 집사 (N서초공동체)
3. 김민정H 집사 (N서초공동체)
4. 김현중B 집사 (N서초공동체)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그분의 완전함과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경태B 집사 (N서초공동체)



에이비 인도자 스쿨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작년부터 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3년 전 2022년 양육과정 1기로 에이비 스쿨을 경험하면서 받

은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비슷한 또래의 형제님들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며 함께 모여 교제하며 (심지어 리트릿까지 가서 밤새가며)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이론과 적용을 함께 나눌 때, 다른 양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성장과 도전을 받았었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인도자라니...' '내가 인도자로서 조원들을 리드할 수 있을까?...' '누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인가?'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도 그랬듯이 일단 의지적으로 나를 일으켜 순종을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열어 주시는 역사, 풀어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3강 주(Lord)를 배울 때 다시 리마인딩 시켜 주시면서, 저의 자신없음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에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고, 절대 순종, 즉시 순종, 기

쁨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제 삶의 조종간을 잡고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을 허락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저를 거룩하게 준비시키사 두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여 승리케 하실 분이시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으로 결단한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그분의 완전함과 강함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조원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6주간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해하실 텐데,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맞춤형 영적 체험을 조원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부스리기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인도자인 저에게도 만나주시길 소망하며,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이끌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에 사용되는 신실한 인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박정희B 집사 (N서초공동체)



작년 몽골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감 없고 부족함만 느껴져 섣뚱 나서기 힘들어하는 저에게 저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한 대로 용기를 내어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자로 양육받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에이비 인도자로서의 역할은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기에 이후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에이비 양육과정으로 양육받았을 때에도 은혜였지만 에이비 인도자 스쿨은 한 층 업그레이드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는 예수님 그분의 본질에 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질대로 임하시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예수 이름의 영적 의미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딱히 주님을 위해 이렇다 할 뭔가를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그저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었고 한 눈 팔지 않은 것 그것만 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인지, 4년 전 한 홍 목사님의 설

교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임하였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역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에서 '이제는 나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비 인도자 스쿨을 통해 예수 이름에 담긴 비밀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 삶가운데서 그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깨닫게 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실 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주님을 부를 때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위해 고초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이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한과 평강을 주시어 승리하게 하시는 왕 중의 왕, 예수님께 즉시 순종, 항상 순종, 완전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인자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니 불안이 아닌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이기에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에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김민정H 집사 (N서초공동체)



양육과정의 진짜 은혜는 인도자 스쿨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예이비 인도자 스쿨 첫 시간까지도 중3 둘째 아이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이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 예수이름의 비밀 제3강 [주 LORD] [Q.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았던 불이익이나 고난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나눔에 인도자님과 조원분들의 대답이 이미 저를 향해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대답처럼 제 눈과 생각이 오직 아이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 입술을 막고 있던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예수님께 드려야 할 진짜 기도제목!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 LORD]이심을 선포하는 자유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양육과정은 그 자체로도 은혜이지만,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보내주신 조원 분들과의 삶의 나눔이 양육과정의 은혜와 더해져 더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홍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과정으로 저를 불러주신 이유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괜찮은 척하려 하지만 저를 누르는 압박감과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에 눌려 세상에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15가지 이름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어린양]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정죄에 빠져 있는 저를 자유케 하실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저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만유의 주재]되시며 [알파와 오메가]되시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 통치자 예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저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악한 마귀로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이비 인도자로 세워지면서 또 새롭게 만나게 될 조원 분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15가지 이름은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가셔서 답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조원들과 함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김현중B 집사 (N서초공동체)



이번 연도에는 멘토로서 CES과정을 신청하여 멘티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다시 한번 은혜받는 시간을 갖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양육과정에서 순모임이나 사역팀에서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여 알고 있었고, 이 은혜는 자동차의 엔진오일이 자동차를 더욱 부드럽게 하듯 저의 신앙생활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이비 인도자 스쿨 콜링 문자를 받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모함을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이비 인도자 스쿨을 망설임 없이 신청하였습니다.

예이비 인도자 스쿨을 하면서 2년 전 예이비 과정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이비 과정을 수료하면서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 속에서 격려해 주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그러한 예수님과의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간증하였는데, 동일한 나눔 질문들이 2년 뒤 지금도 또한 새롭게 간증할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

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예이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본인의 신앙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양육과정 속에서 조원들과 나누면서 다시금 기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막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하기보다는 살아가면서 특정 상황 속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대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예이비 과정의 은혜와 재미를 앞으로 함께하게 될 예이비 조원들과 함께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CES과정도 멘티보다 멘토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듯이, 이번 예이비 과정에서도 조원들 못지않게 저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인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이비 과정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025.
05

아기학교 간증

04

1. 임희정 집사 (N강남공동체)
2. 이호준A 성도 (강북공동체)
3. 김호림 선생님 (청년1부)

아기학교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임희정 집사 (N강남공동체)



아기학교가 시작되다 는 소식에 설레며 신청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6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일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더니, 이번 6주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쌍둥이 아이들과 분주히 준비해 교회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교회에 도착해 영아부실 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매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공동육아처럼 주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큰 기대까지는 하지 않았고, 6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학교를 마치고 돌아보니,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와 소중한 경험이 되었는지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라는 주제를 따라 눈, 코, 입, 손, 발 하나하나를 배우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어른으로서, 지금은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웃으며 자라는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홀로 서서 세상을 마주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 오늘의 이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번 6주간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전도사님께서 “항상 웃는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웃음은 아기학교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 덕분이라 믿습니다.



짧다면 짧은 6주였지만, 그 안에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졌고, 이 시간이 앞으로 저희 가정을 지켜주는 귀한 신앙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이 또 다른 아이들과 가정에게도 계속해서 심겨, 아기학교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기도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아기학교,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행복한 아기학교

이호준A 성도 (강북공동체)



주중 아침마다 어플에서 오는 한 줄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얼핏 보며 일을 시작하기 전 속으로 ‘네! 주님, 오늘도 연락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에 합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도사님께서 아기학교 소감을 나눠줄 수 있느냐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아기학교 수료식에 소감문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해나와 아기학교에서 아내와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이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해나도 아기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활동적이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들이 더 생기게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해나가 아기학교를 하면서 신문지를 뜯으며 소리 냈던 게 좋았는지 집에서도 크레파스 놀이가 끝나면 어김없이 종이를 예쁘게 찢고 놀곤 합니다.

아기학교를 통해 저희 가정은 해나와 더 친밀감을 갖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해나를 키우면서 앞으로 도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하는 통

로가 막히거나 끊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해나가 커가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의 소중함을 성숙하게 알아가고 쌓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해나를 키우며 저희 부모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때론 육아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가 주는 사랑과 행복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또한 여기 학교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듯합니다. 해나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부모로서 믿음으로 곁에 있고 지켜주겠습니다.



끝으로 아기학교를 위해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채워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너무 따뜻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김호림 선생님 (청년1부)



2025년 봄학기 아기학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영아부실에서 아가들과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기쁨 넘치는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모든 시간 넘치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힘을 다해 모든 시간을 준비하시고 섬겨주신 전도사님과 아기학교 모든 선생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아기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아가들에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덧 저는 다섯 학기째 아기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 학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 왔습니다. 모든 사역의 자리가 그렇듯이 아기학교도 사전 준비 모임부터 마지막 주 수료식까지 섬김의 수고도 크지만, 그 수고를 다 덮고도 남는, 아니 오히려 모든 수고가 더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곳, 아기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 왔습니다.

아기학교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곳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아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런 사람의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아가들이 있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부모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아가들. 아직 또박또박 말하지는 못해서 음만 따라 소리 내는 아가들의 찬양 소리, 선생님의 율동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가들의 몸짓,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하는 모습과 신나서 어쩔 줄 모르고 큰 소리로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 눈을 맞추고 미소 지어주고 손 흔들어주고 안아주는 그 자체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선사하는 우리 아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기학교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아가들이 있기에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 가득, 기쁨 가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녹초가 될 만큼 힘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 학기 아기학교에서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뻐하는 것은, 참된 하늘의 기쁨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 오시든 교사로 오시든, 오셔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도록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기학교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이웃에게로, 믿지 않는 가정들을 향해 날마다 뻗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2025.
05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05

브라더스키퍼
BROTHER'S KEEPER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브라더스키퍼를 소개합니다!**# Save People and Save Nature****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입니다!**

브라더스키퍼는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8년 창업 이후 'BREATH KEEPER'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실내 벽면녹화와 플랜테리어 사업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고 삭막한 도시에 자연을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은 브라더스키퍼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일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람과 관계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

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한 해에 약 2000명 이상의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립준비 청년의 현실은 여러 통계에서 나오듯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20살, 갑자기 세상에 나와 겪게 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어린 시절 시설에서 지내며 단체생활을 통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기에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를 어떻게 내는지, 은행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매 순간을 맞이합니다. 보통의 20살이 겪는 설렘 가득한 홀로서기가 아니라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두렵고 떨리는 홀로서기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해지

기도 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3104명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50%로 집계됨)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에 대해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될까? 조금 다르게 자라 온 환경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소극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모두가 비슷한 처지에서 자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메인 사업인 플랜테리어 사업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식물을 통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식물을 돌보며 각자의 상처를 회복해 가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일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일반적인 사회로 나아가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는 내성과 힘을 기르는 것이 브라더스키퍼가 안전한 울타리로 역할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브라더스키퍼는 플랜테리어 사업뿐만 아니라 그간 당사자로서 꾸준히 자립준비 청년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립수당을 만든 것, 보호 종료 기간을 만 24세로 늘린 것, 사회적 기업에서 인정받는 취약계층 분류에 자립준비 청년이 들어가도록 한 것 등 여러 정책 변화들에 일조했고, 새로운 어젠다를 사회에 던지며 이제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보호아동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립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자립 이전의 준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기간 동안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사회에서 어우러져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여전히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친구들의 40~50% 이유는 '학대'입니다.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치로 현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30~40%가 경계선 지능이거나 ADHD를 판정받아 보호와 교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정서적 케어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브라더스키퍼의 미션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이기에 그것의 근간인 보호아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brother's keeper
save people and save nature

#청년이 '함께' 설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완전히 혼자가 되어 맞이하는 세상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버겁기에 여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함께할 때 진정으로 각자 잘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살은 홀로서기를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함께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것을 위한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사소한 무관심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겪은 조금 다른 경험이 사회에서 편견과 낙인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20살이 넘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알려줄게. 같이 해볼까?”라고 다가가는 친구와 동료, 그리고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브라더스, 키퍼합니다.

🏠 브라더스키퍼 홈페이지: brotherskeeper.co.kr

2025 여름말씀부흥집회

제자의 길

05.30(금) 오후 8시, 05.31(토) 오후 7시, 06.01(주일) 1-4부 | 본당

강사
박정근 목사
부산영안교회 원로



05.30(금) 제자와 예배 (히브리서 11:1-5)

05.31(토) 제자와 계명 (요한복음 13:34-35)

06.01(주일) 제자와 언약 (창세기 15:12, 17-18)

[서울 운행시간 안내]

- **노선**: 양재역, 선바위역
- **운행시간**: **금요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 수시 운행 / **토요일**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수시 운행
- ※ 출차는 예배 마치고 10분 후에 있습니다.

[차일드케어 안내] 예배 30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대상**: 4-11세(4학년)
- **장소**: 4-7세 영아부실(2층) 1-4학년 새로운홀2(6층)
- ※ 4세 미만 자녀는 유아부실(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 **문의**: 이사무엘 목사, 카톡ID: soerounchurch

※ 본당 입장은 예배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30

금

제사와 예배

히 11:1-5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By faith Abel brought God a better offering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righteous,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And by faith Abel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By faith Enoch was taken from this life,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He could not be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away." For before he was taken, he was commended as one who pleased God.



박정근 목사
부산영안교회 원로

31

토

제자와
계명

요 13:34-35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
랑하라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박정근 목사
부산영안교회 원로



01

주일

제자와 언약

창 15:12, 17-18

-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As the sun was setting, Abram fell into a deep sleep,
and a thick and dreadful darkness came over him.

- 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
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When the sun had set and darkness had fallen, a
smoking firepot with a blazing torch appeared and
passed between the pieces.



박정근 목사
부산영안교회 원로

-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On that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is land, from
the Wadi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메모



2025 여름성령부흥집회

제자의 길



강사. 박정근 목사
(부산영안교회 원로)

예배안내.

5.30(금) 오후 8시 | 제자와 예배 (히11:1-5)

5.31(토) 오후 7시 | 제자와 계명 (요13:34-35)

6.1(주일) 1-4부 | 제자와 언약 (창15:12,17-18)

장소 | 새로운교회 본당



문의.이사무엘 목사, 카톡ID : saerounchurch / 본당 입장은 예배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Wednesday Prayer Worship



5월 수요일기도예배 가정

5/7 이성훈 목사

5/14 강정현 사모

5/21 조은영 목사

5/28 이사무엘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